

공동체 소식



연중 제 21주일

아버지, 십자가의 좁은 문을 통하여, 모든 이를 새 생명의 파스카 잔지로 부르시니,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가 아드님의 제사에 참여하고, 아버지 나라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8월 기도지향

-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가정
- 박성기(모이세), 김정옥(수산나) 가정

☞ 9월 기도 지향 : 류기범(요셉), 신혜경(마리아) 가정 /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가정

주간 전례

- 8/27(화) 성녀 모니카 기념일
- 8/28(수)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기념일
- 8/29(목) 성 요한 세례자의 수난 기념일

셀 기도 주일 팀

- 목주기도의 모후 : 화요일 오후 8시, 이영민 엘리사벳
 - 평화의 모후 : 수요일 오전 11시, 정선식 베로니카
 - 자비의 모후 : 주일 오후 1시, 김인자 글라라
- ☞ ‘셀기도’는 참된 신심을 키우는 작은 모닥불이 될 것입니다.

구역회의

- 일시 : 8/25(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회관

신심미사

- 첫금요일 : 9/6(금) 오전 10시 미사 / 십자가의 길
- 첫토요일 : 9/7(토) 오전 10시 미사 / 미사 30분 전 목주기도

구역 모임

- 1구역 : 9/7(토) 오후 7시, 이영민 엘리사벳 덕 7824 Woodstone Ln. Lenexa, KS 66217
- 2구역 : 9/7(토) 오후 7시, 안동현 프란치스코 덕 14317 Hadley st. Overland Park, KS 66223
- 3구역 : 9/6(금) 오후 7:30, 정수한 베드로 덕 14810 Goodman st. Overland Park, KS 66223
- 4구역 : 9/7(토) 오후 7시, 김병철 베네딕도 덕 15304 Foster st. Overland Park, KS 66223
- 5구역 : 9/7(토) 오후 7시, 문석찬 요셉 덕 8331 N. Kensington Ave. Kansas city, MO 64119

기타

- 저희 한인 공동체의 친교와 미래를 위해 주일 미사만큼은 본당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하고 소홀히 한다면 공동체의 미래도 어둡습니다.
- 이번 주, 27일(화)과 29일(목)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22	511	163/161	39

주일미사 복사

금주	안광민(야고보), 정예찬(미카엘)
차주	향/정수한(베드로), 정예찬(미카엘)
	시중/정준구(파비아노), 정병훈(보니파시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세실리아)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 젤 라)
차주	김명은(안 젤 라)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 네 스)

애찬 봉사자

금주	김경희, 안혜진, 김인자, 정연숙, 한순례
차주	손정화, 한춘희, 황의정, 양정희, 유경애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드로)
차주	문석찬(요셉), 최은미(아네스)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8/11	95명	425불	2,880불
08/18	92명	424불	1,51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회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하루가 낮과 밤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 생활에는 낮처럼 빛이 날 때가 있는가 하면, 밤처럼 어둠의 시기를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기에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인내입니다. 구원의 잔치에 나아가는 길에는 이처럼 기쁜 순간도 있고, 인내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미사를 봉헌하며 온갖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화해설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
(하인리히 호프만, 1889년, 캔버스에 유채,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소장)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루카 13,24)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입으로만 말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믿으며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돌보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이사 66,18-21 < 그들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데려오리라.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가서 복음을 전 하 여 라

○ 못 나라 백성들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찬미하여라. ◎

○ 주님 사랑 우리 위에 곳곳하시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시라. ◎

제 2 독서 : 히브 12,5-7.11-13

<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신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복 음 : 루카 13,22-30 <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

쉐 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명작소설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 소설을 접했는데, 당시엔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두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아련합니다.

「좁은 문」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험했을 법한 내면적 갈등을 자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1869년 파리 출생으로, 11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엄격한 종교적 계율을 강요한 어머니 아래서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좁은 문」은 그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는 문학에 대한 열정을 보이기 시작한 10대 후반부터 사촌 누이를 사랑하고 불안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소설에서도 남자 주인공 제로움은 자신보다 두 살 위인 외사촌 누이 엘리사를 사랑합니다. 둘의 사랑은 순수하지만 지상에서 이를 수 없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느 날 교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설 속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의 의미와 사랑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대한 사랑이 신앙에 대한 배반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성장한 저자는 작품 안에도 자신의 신앙적 태도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합니다. 그래서 소설 「좁은 문」에서의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 아닌 ‘두려움과 징벌의 하느님’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조건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태 7,21 참조) 오히려 주님을 어설픈게 아는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첫째가 되고 누가 꼴찌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탐욕으로 살찐 몸뚱이는 욕심을 버리고 줄여야 합니다.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 길입니다. 우리도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매 순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 서울대교구 허영엽 마티아 신부 -



마중물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

인디언들은 청소년들의 용기를 키워주기 위해 독특한 훈련을 시킨다. 소년이 열세 번째 맞는 생일날 밤, 그는 사냥법, 정찰법, 낚시법을 배운 후 숲속에 홀로 내버려진다. 그때까지 그는 가족이나 부족의 보살핌에서 떨어져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 밤 소년은 눈을 가린 채 멀리까지 옮겨진다. 눈가리개를 풀었을 때, 소년은 뻑뻑이 우거진 숲 한가운데 있게 된다. 그 지나간 밤을 소년은 홀로 지새워야 하는 것이다.

가지가 스산히 찔씩거릴 때마다 그는 느닷없이 달려들 동물들을 떠올린다.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때면, 늑대가 어둠 속에서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것만 같다. 바람이 불면, 더욱 불길한 예감이 스쳐지나간다. 너무나 무서운 밤인 것이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지나고, 한 가닥 섬광이 새벽을 깨우며 숲속을 비쳐온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소년은 꽃, 나무, 길을 본다. 그때 활과 화살을 들고 몇 미터 밖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 사람은 소년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온밤을 함께 지낸 것이다.

우리에게 여러 삶의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 하느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느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분의 존재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 그 자체보다 더 실제적이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50.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희생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희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속량적, 배상적, 속죄적 그리고 보상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생명을 제물로 바치실 때 우리 모두를 인식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2코린5,14).

사람은 제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는 하느님 아들의 신적 위격은 모든 사람들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머리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가 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16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